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농업전선의 병기장으로 될 린비료공장을 마음먹고 크게 건설할데 대한 결심을 내리신 그날로부터 수십차에 걸쳐 공장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설계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며 걸음 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당에서 그처럼 기대하는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총계획과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공장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들끓는 공사현장을 거니시며 하나를 창조하고 건설해도 오직 우리 식으로, 우리 힘에 의지하여라는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도 맞먹는 어려운 대상건설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가고있는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본태를 접하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진다고 하시면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산하기업소들과 순천시를 비롯한 건설에 동원된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들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들중의 하나라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대상공사에서 제기되는 자금보장문제를 당에서 시급히 대책할것이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완강하게 밀어주겠으니 내각과 화학공업성, 채취공업성이 주인다운 자세와 관점을 바로가지고 힘있게 추진시켜보라고 영예로운 과업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바람이 불어야 기밭이 날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라고,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울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욱더 거세차게 휘날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나간다면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웅대한 경제강국건설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정면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제시된 올해에 제일먼저 돌파구를 열고 승리의 기발을 쫓는 전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부분의 투쟁소식이 전국의 대고조선투쟁마다에 무한한 힘과 고무를 보내주게 되기를 바란다, 하시며 그들의 로력적위훈을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 중대한 사업을 철두철미 자체의 힘과 기술, 로력에 의지하여 풀어나가고있는것은 당의 정면돌파사상과 의도에 철저히 부합되는 좋은 시도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같은 자력갱생투쟁에 의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나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린비료공장의 모든 요소들과 공정을 자동화하고 철저히 로력절약형공업으로 일떠세우것을 지향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조종계통

의 믿음성과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공장의 기술로력을 튼튼히 꾸리며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생산자들을 키우는데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당의 비준방침대로 린비료공장을 시급히 환원복구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과 린비료공산환원복구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고농도린안비료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수호의 최전방인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는 애국의 뜨거운 마음과 안고 장엄한 정면돌파전의 전초병으로서 힘차게 싸워나간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강원도수산사업소 준공식 진행

강원도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가 일떠세워 준공되었다. 통천군 읍지구의 수만㎡의 부지에 능력이 큰 팽동고, 진공냉동장, 사무청사 등 설비들을 그쁘히 갖춘 수산물생산 및 가공기지가 번듯하게 건설됨으로써 강원도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더욱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수산사업소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통천군 인민들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강원도인민들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끊임없는 은정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건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과학적이며 실리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동해포구에 로동당시대의 《이제어경》을 펼쳐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전진비약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결기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결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작전도, 설계도를 받아안고 당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의 진군보폭을 더 크게 내걸은 무한한 격정을 안고 대회장으로 모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사상과 로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동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도론에 이어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결의문은 오늘의 정세는 우리가 각 방면에서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것을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시를 당중앙결 사용위의 보루로, 사회주의 성새로 더욱 굳건히 다지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전국의 본보기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시한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총열기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불매의 위력과 양양한 전진도를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할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맹세를 담은 결의문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의 열광마다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내 조국의 힘찬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길 줄은 맹세가 비껴있었다.

평양시결기대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드팀없는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굴함없는 투쟁정신으로 전진비약함으로써 정면돌파전의 첫해, 당창건 75돐이 되는 올해에 세계를 뒤흔드는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욱 높기차게 울려갈 공화국인민의 백결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